



제목: 전주천 수달이 하루

2023년 10월 0일 -수달-

오늘은 내가 일찍잠에서 깬다

왜냐면 시끄러운소리때문이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다른 옷을 입은  
선생님들을 따라 전주천에 왔다.

'내 집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나에게 먹을걸줄까?  
아니야! 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몰라!'

'지금 돌틈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관두자!'

잠시후 나는 너무 졸려서 눈을 감았어. 휴.

잠을 잘수가 있어야지. 재들 더럽게 시끄럽게  
하네. 무슨 소풍왔냐! 나의 입장을 생각 해보면  
안되나? "근데지금 뭘제야!!!" '뭐야? 지금

아침 10시야?!' '나는 새벽에 깨있어야 하는데?

하는데? 왜 아침에 깨있냐고?' '그래 갈때까지

만 기다려보자!' 잠시후.. 어저구, 저저구 밖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이야기 하고 있었어.

'하, 재들 언제가냐?' 그대! 다른 옷을입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로 가자!" 이렇게

말했어 '아싸! 이제야 가는구나!'

잠시후.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자, 난 눈을 감고

잠이 든후, 생각했어 '힘든 하루였어. 너무 졸리니까

물고기는 새벽에!' '그럼제 해서 나의 하루가

끝났어 휴, 힘들었어. '오늘은 물고기 꼭꼭하게 들고

한국의 반대편 돌틈에 소풍가려고 했는데,

물고기 많이 먹을수 있었는데, 반대편 돌틈  
구경할수있었는데. "후후"





## 제목: 환경이 좋아야 수달이 온다!

전주천에는 부달이와 설달이가 살았다. 서로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4살에 만났는데 사이좋게 놀고 생선도 나누어주며 살았다. 부달이가 “난 생선 2개 잡아왔다.”라 했지만 설달이는 “난 4개 잡아왔는데.”라 했다. 부달이는 부러운 듯이 표정을 지었다. 설달이는 “너 1개 먹을까?”라고 하며 생선 1개를 건네주었다. 부달이가 “고마워.”라고 말하기도 전에 설달이는 전주천으로 뛰어들었다. 부달이는 뚱을 싸려고 전주천 아래로 급하게 갔다. 뚱을 싸고, 잠깐 휴식중에 전주부설초 3학년 학생들이 부달이의 뚱을 발견하자 잠깐동안 부달이의 뚱에 인기가 끌렸다. 부달이와 설달이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부달이가 “저 아이들 왜 저러냐?”라고 하자 설달이는 “수달 뚱이 그렇게 좋은건가?”라 했다. “저것도 내 뚱인데.”라고 부달이가 말했다. 전주부설초 3학년 친구들이 돌아가자 부달이와 설달이도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전주천에 까만 잉크가 세어 나왔다. 부달이와 설달이는 “으으... 저게 뭐지? 토망쳐!”라 하며 전주천을 벗어났다. 다른 수달들과 동물들도 전주천을 벗어났다. “저기 운저에 있나 보.” 같은 말을 하다가 다시 깨꿔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 다시 전주천에 수달이 찾아왔다. 이처럼 진짜 전주천에도 아침에도 수달을 불러면 좋은 환경을 만드면 된다.

→ 2H161.

